

스포츠 권력 항배는?...체육회장·축구협회장 선거 주목

대한체육회장 14일 선거

이기흥·유승민·김용주 등 6파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8일

정몽규·허정무·신문선 3파전

‘대한민국 스포츠 권력의 교체나 아니면 현상 유지냐.’

2025년 새해 첫 달 한국 체육의 미래에 중요한 체육단체장 선거가 일제히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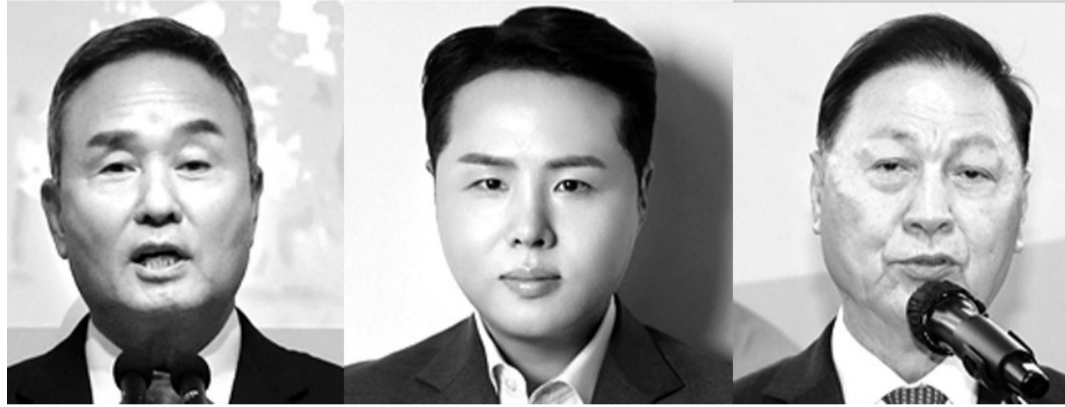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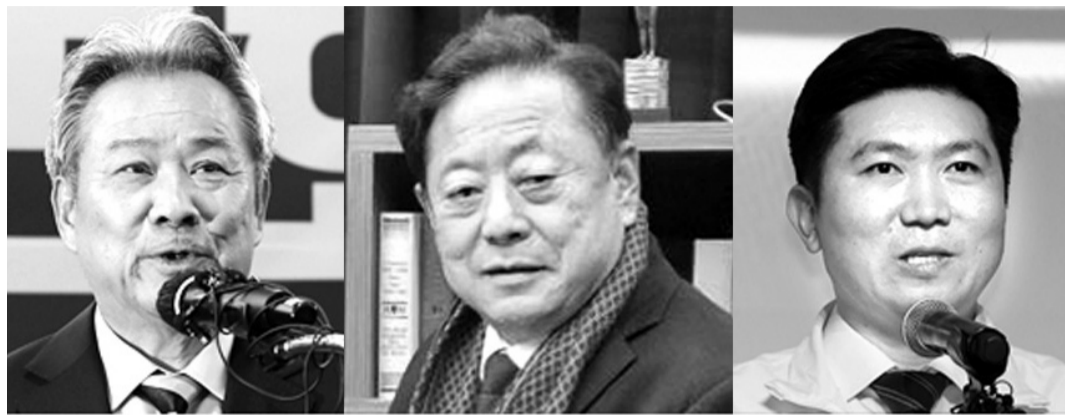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는 대한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14일 열리고,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중 최대 예산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는 8일 개최된다.

제42대 체육회장 선거는 이기흥 회장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5명이 도전장을 냈고,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정몽규 회장의 4연임 도전 속에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의 3파전 양상이다.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300여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되는 체육회장 선거의 최대 관심은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 회장이 3선에 성공할지 여부다.

체육회장 선거에 역대 가장 많은 6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8년간 체육회를 이끌어온 이 회장은 현직 프리미엄 덕에 다른 후보들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건 부인할 수 없다.

이 회장은 4명이 출마했던 4년 전 제41대 선거



상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기흥 후보, 김용주 후보, 유승민 후보, 강태선 후보, 오주영 후보, 강신욱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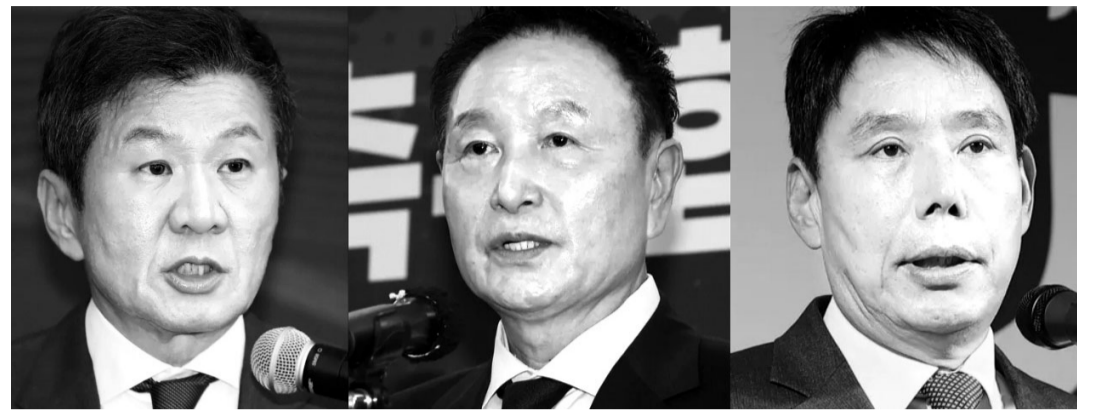
때는 절반에 육박하는 46.4%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야권’ 후보인 김용주 전 강원도

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탁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5명의 표가 분산될

수 있어 이기흥 후보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때문에 선거 직전까지 ‘반기흥’ 후보들의 단일화 불씨는 살아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후보 등록 직전에는 박창범 전 대한우수협회가 강신욱 후보로 단일화하며 사퇴했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단일화를 촉구하며 출마



왼쪽부터 정몽규, 허정무, 신문선 후보.

를 포기했다.

지난달 30일 ‘이기흥 회장 비리 의혹 해명과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강태선 후보는 “단일화는 꼭 성사하겠다는 의지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강신욱 후보 역시 단일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반면 이기흥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직무 정지가 풀릴 가능성이 적은 데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문제부의 ‘해임’ 처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표심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주무르는 축구협회장의 경선 결과도 관심거리다.

4연임을 기대하는 정몽규 후보가 수성을 노리는 가운데 대항마로 나선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의 권력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정몽규 후보는 협회 개혁과 한국 축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7 아시안컵 우승, 2028 올림픽 메달 획득을 세부 목표로 제시했다.

반면 신문선 후보는 선수 은퇴 후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일하고 해설위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프로 축구단 사장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에 참여했던 경력을 앞세워 축구협회의 변혁을 이끄는 ‘전문 CEO’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또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 대표팀 사령탑으로 첫 원정 16강 진출을 지휘했던 허정무 후보는 축구협회의 열린 경영과 활발한 소통,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의사결정, 팬들의 참여를 보장할 조직과 문화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 역시 선거 직전까지 정몽규 후보의 4선 저지를 위한 단일화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질 체육회장·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체육인들의 표심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신진서·박정환·변상일...한국 바둑 1~3위 세계기전 우승 도전

신진서 난양에서 왕싱하오와 대결
변상일 LG배·박정환 춘란배 출전

‘절대 1강’ 신진서 9단에게 의존하던 한국 바둑이 새해에는 모처럼 삼각편대를 출격시킨다.

한국은 연초부터 시작되는 각종 세계대회 결승에 국내 랭킹 1~3위가 차례로 등판해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 랭킹 3위 변상일 9단은 오는 20일 시작하는 LG배 결승 3번기에서 중국의 간판스타 커제 9단과 대결한다.

상대 전적은 변상일이 커제에게 6전 전패를 당한 상태다.

하지만 2023년 춘란배 정상에 오르며 처음 세계대회 우승컵을 안은 변상일의 바둑이 한 단계 올라서며 자신감도 커졌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월에는 신진서가 시즌 첫 우승 사냥에 나선다. 신진서는 2월 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회 난양배 결승 3번기 제1국에서 중국의 신예강자 왕싱하오 9단과 대결한다.

상대 전적은 신진서가 2승 1패로 앞서 있다.

올해는 한국 랭킹 2위 박정환 9단도 모처럼 세계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시작된 제15회 춘란배에서 리웨이칭 9



왼쪽부터 신진서, 변상일, 박정환.

단과 구쥘하오 9단, 시바노 도라마루 9단 등 중국과 일본 강자들을 차례로 꺾은 박정환은 중국의 양카이원 9단과 결승에서 맞붙는다.

2021년 삼성화재배 이후 4년 만에 세계대회 우승을 노리는 박정환은 양카이원과 한 차례 맞붙어 승리한 바 있다.

춘란배 결승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반기 중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은 LG배와 란커배를 석권한 신진서

9단만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다.

국가대항전인 농심신라면배에서도 신진서가 초유의 ‘끝내기 6연승’으로 한국의 극적인 역전 우승을 견인했다.

그러나 새해에는 박정환과 변상일이 신진서의 심적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음 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농심배 최종 3차전에서 신진서와 박정환이 함께 출전해 대회 5연패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전북 공격수 문선민, FC서울서 뛰다



국가대표급 베테랑 공격수 문선민(32·사진)이 새해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빈다.

서울 구단은 문선민을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구단은 계약 기간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시즌까지 전북 현대에서 뛰던 문선민은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로 수비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수다.

문선민의 합류로 서울은 기존 링가드, 루카스, 조영욱으로 구성된 2선 공격진에 무게감을 더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전방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역시 전북에서 데려온 특급 골백 김진수에 이어 서울이 새 시즌을 앞두고 전한 두 번째 ‘대형 이적’ 소식이기도 하다.

문래중, 장훈고 출신의 문선민은 2012년 스웨덴

외스테르손드에서 프로로 데뷔했으며, 2016년까지 5년 동안 스웨덴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2017시즌을 앞두고 국내 무대에 입성한 문선민은 2024시즌까지 K리그 통산 227경기 50골 31도움을 기록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활약했다. 태극마크를 달고 17경기 2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문선민은 “서울에 입단하게 돼 기쁘다. 일대일 돌파, 공간 침투, 침착한 마무리 등 나의 장점을 활용해 공격포인트를 많이 기록하고 싶다”면서 “서울이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선민은 1월 3일에 소집돼 김기동 감독을 비롯한 팀 동료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2025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의 1차 동계 전지훈련은 5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KB 비에나·정관장 메가, 프로배구 3라운드 MVP 선정

메가와 비에나가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MVP가 됐다.

KOVO는 1일 메가워티 퍼티워(정관장)와 안드레스 비에나(KB손해보험)를 이번 시즌 V리그 3라운드 남녀부 MVP로 선정했다.

여자부 메가는 기자단 투표 31표 중 13표(부키

리치 12표, 김연경 2표, 모마·실바 각 1표, 기권 2표)을 얻으면서 23-24시즌 1라운드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MVP의 영광을 안았다.

비에나는 득점 1위(149점), 공격 2위(성공률 58.93%), 킥오픈 1위(77.78%)에 이름을 새기며 KB손해보험이 3라운드를 5승 1패로 마치는 데 앞

장섰다.

여자부 3라운드 MVP 시상은 오는 10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GS칼텍스와 정관장 경기에서 이뤄진다. 남자부 시상식은 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예정된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 경기에서 진행된다. /서민경 기자 minky@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